

삼성 'AI 드리븐컴퍼니' 전환... LG, AI·바이오·클린테크 집중

주요기업, 조직개편·사업전략

SK그룹, 본원적 경쟁력 강화 강조
현대차그룹, 공급망 다각화 속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말 조직 개편과 함께 내년 사업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내년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삼성전자가 전사적으로 'AI 드리븐 컴퍼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서 내년에도 AI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구성할 전망이다. DS 부문은 AI 반도체 경쟁력과 지정학적 변수 대응을, 메모리 사업부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내년 초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내년 사업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내년 초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

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초청해 '신년 사장단 만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지난 10일 구광모 회장 주재로 최고경영자(CEO) 40여명이 참석해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구 회장과 CEO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에 중점 추진할 경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AI·바이오·클린테크(ABC) 등 신성장 사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고, AX(AI 전환) 가속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지난달 초 CEO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운영개선(O/I·Operation Improvement)을 지속 추진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SK 멤버사들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AI 관련 조직을 출범했다. SK하이닉스는 지역별 AI 리서치 센터를 신설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CEO 직속으로 AX단을 꾸렸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로 현지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李 정부 출범 6개월 업무보고 첫 생중계

정부 '책임지는 행정' 기초

사상 최초로 정부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 운영', '적극 행정' 등이 정부의 기조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처리 성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존 공약을 검토하라고 한 데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디자인 뺑기는 신동빈... '고객중심' 브랜드 전략 선언

롯데,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올해 주제 '브랜드 연속성' 선정
'디자인 IP 밸류업 전략' 등 소개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 전략 회의를 열고 고객 중심으로의 브랜드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롯데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주요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디자인전략회의는 그룹 차원에서 롯데의 브랜드와 디자인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 주제는 '브랜드 연속성(Brand Continuum)'으로 선정됐다. 발표자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과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실장이 롯데의 디자인 전략 및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

로 나선 이돈태 디자인실장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롯데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브랜드 전략 관점의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

심으로'가 핵심 실행 과제로 논의됐다. 제품과 서비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 개선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회의장에는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부스도 마련됐다. 롯데는 디지털 환경과 사업군별 특성에 맞춰 고도화한 '그룹 CI 가이드라인 2.0'을 공개했다.

또한 그룹의 자산을 활용한 '디자인 IP 밸류업 전략'도 소개됐다. 과거 롯데월드(구 롯데제과)의 상징이었던 '햇님마크' 등 롯데가 보유한 헤리티지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IP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그룹의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롯데 시그니처 향 등도 함께 선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의 브랜드 경쟁력과 고객 경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리"라며 "계열사의 디자인 역량을 결집해 그룹 차원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폭주하는 환율... 외환시장 공급·수요 불균형 확대

수출 기업들 달러 환전 미루고
기관·개인 해외투자자 수요 ↑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70원을 웃돌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헤지(자산가치 하락 회피) 목적으로 수출 대금의 달러 환전을 미루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의 해외투자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지속되면서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에도 향후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달러 가치를 끌어 올렸다.

◆ 환율 고공행진... 연일 1470원 ↑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473.7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11월 24일 기록한 1477.1원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다. 원·달러 환율은 이어진 야간거래(익일 오전 2시 종가)에서도 상승을 지속해 147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4월 8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초 두 달여 만에 달러당 1400원 선에 진입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평균 환율(주간거래 종가 기준)을 달러당 1460.44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지만, 이달 들어 평균은 이보다 더 높은 1470.4원이다.

◆ 달러 폭귀
최근 원화 대비 달러 강세가 심화한

것은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불균형 때문이다. 기업들이 강달러 기조에서 헤지 목적으로 수출대금 환전을 미루면서 달러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해외투자 수요가 늘어 시장에서 달러가 귀해진 것.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의 외화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됐던 만큼 헤지 목적으로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원화 환전을 미룬 영향이다.

또한 예약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55억3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 지난 10월의 68억1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 흔들리는 美 금리인하 전망

미 연준이 향후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달러 가치를 끌어 올렸다. 달러 가격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높게 형성된다.

앞서 미 연준은 12월 9~10일(현지시간) 개최한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FOMC 직후 공개된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인하 횟수를 1회 이내로 제시해서다.

미 연준은 12월 FOMC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앙값으로 3.4%를, 2027년·2028년에는 3.1%의 중앙값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편, 현재의 환율을 상단으로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삼성, 두 번 접는...'서 계속

"대화면 속 완벽 UX 제공"

강 부사장은 "단순히 두 번 접는 하드웨어를 넘어 대화면에서도 완벽한 사용자 경험(UX)과 소프트웨어 사용성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라이폴드폰을 비롯한 폴더블폰 시장 또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출하량 기준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64%로 전년 동기 대비 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폴더블폰을 비롯해 트라이폴드폰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다만 트라이폴드폰은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이 품질 안정성과 브랜드 파워를 무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 경쟁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